주장자의 진수를 엿보다

인오 스님, 4월 19~24일 전람회 · 출판기념식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원광사 주지 인오 스님이 20여 년의 내공을 담아 만든 주장자 33점을 선보인다. 사진은 인오 스님이 주장자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지혜의 지팡이로 불리는 주장자(拄杖子)는 스님들이 갖춰야 할 18가지 법구(法具) 중 하나다. 주장자는 스님들이 길을 걸을 때 안내하는 나침반이며 경책의 도구였고, 법을 일러주는 상징물이었다. 선사들이 법문할 때 주장자를 들어 올리면 부처님의 염화미소처럼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수해 수많은 언어를 대신하는 마음법이 됐다.

진리의 법구 주장자가 가진 상징을 널리 알리고 선사들의 가르침이 이어지길 발원하는 특별한 전람회가 열린다.

부산 원광사(주지 인오)는 책 〈주장자〉 출판기념회 및 전람회를 4월 19~24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한다. 개회식은 19일 오후 2시다. 전람회에서는 원광사 주지 인오 스님이 20여 년 동안 제작한 주장자 중 가장 뛰어난 33점을 볼 수 있다. 인오 스님은 겨울이면 주장자 나무를 구하러 산에 다녔으며 나무를 말리고 굽기까지 1년여의 시간을 들였다.

인오 스님은 "지팡이 역할을 하던 주장자가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점점 보기 어려워져 안타까워 전람회를 마련했다"고 행사 취지를 전했다.

"주장자를 든 스님들을 뵈면 그 위엄에 환희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요즘 현대에서는 갈수록 보기가 어려워 아쉽습니다. 불교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전람회를 마련했으며 주장자를 드는 큰스님들이 많아져 부처님 법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인오 스님의 주장자는 감태나무(연수목)로 제작됐다. 감태나무는 철분 성분이 많고 항암작용을 하며 독충을 막는 효과가 있다. 감태나무 주장자는 통도사 극락암 경봉 선사가 사용했던 나무이기도 하다.

현대사회 발달로 인해
보기 드물어진 주장자
20년 내공 담긴 33점
한자리서 대중 공개돼

인오 스님은 "반야, 지혜를 상징하고 경책을 하는데 사용돼온 주장자다. 재료부터 해로움이 없는 나무로 제작해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인오 스님이 주장자와 인연을 맺은 건 은사인 통도사 근안당 지일 스님과 처음 주장자 나무를 구하러 내원사 계곡을 방문했을 때부터다. 하루 종일 찾아 헤매다 벼랑 끝에 있는 나무를 우연히 발견해 은사의 주장자를 만들었다. 지일 스님과 함께 주장자를 만들며 들었던 가르침은 평생 인오 스님의 지침이 되고 삶을 이끄는 지표가 됐다. 지일 스님은 인오 스님에게 "주장자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말라. 주장자는 살아 있는 법구가 돼야 하며 주장자를 드는 활구로 중생을 만나라"고 당부했다.

인오 스님은 "포교 활동과 수행을 이어가며 은사스님이 그리울 때마다 한두 개씩 만든 것이 오늘의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인오 스님은 은사 지일 스님 이후 前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현 방장 성파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주장자를 전달했으며, 전람회에서는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에게 주장자를 선물한다. 또 앞서 출간한 책 〈주장자〉 출판기념식을 함께 열어 못다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책 〈주장자〉에는 △주장자의 의미 △부처님과 제자 그리고 선사가 담은 주장자 이야기 △경전 속 주장자 이야기와 설화 △경봉 스님, 성철 스님, 성수 스님의 법문이 담겨 있다. 전람회 수익은 양산부산대병원 어린이병원 환우 치료비로 전달된다.

인오 스님은 통도사 근암당 지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앙승가대학, 위덕대학원을 졸업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조사국장, 통도사 호법국장, 울산 대각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 원광사 주지로 나눔과 포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불교계 봉축행사 준비 '만반'

울산 · 창원 · 통영 불교계 부처님오신날 행사 확정

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울산, 창원, 통영 등 경남불교계가 화려한 축제와 볼거리를 마련하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울산시불교종단연합회(회장 명본)는 '2019 태화강 연등축제'를 오는 4월 26~28일 남구 태화강 둔치(구 태화호텔 앞)에서 개최한다.

연등축제는 4월 26일 장엄등 점등식과 전시로 시작해 27일 야외특설무대에서 예술제, 부처님 이운행렬, 울산문화제, 태화강 소망등 띄우기 등을 진행한다. 28일에는 발우공양체험, 이웃종교 합창제, 행복바라미 문화행사, 봉축법요식, 봉축 제등행렬 등이 마련된다. 제등행렬은 4월 28일 오후 7시 태화강둔치에서 출발해 태화로터리, 신정시장, 울산시청까지 이어져 총 1.2㎞를 아름다운 연등으로 수놓는다. 이외에도 만등연등불사, 불교문화체험, 캘리그라피, 연등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민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창원시불교연합회(회장 월도)는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일정을 확정하고 만반의 준비에 돌입했다.

먼저 5월 10일 오후 7시 창원광장에서 '연합 봉축법요식'을 봉행한다. 봉축법요식은 육법공양, 관불의식, 봉축법어 순으로 진행되며, 오후 8시에는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봉축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에는 창원연합합창단과 가수 김연자 · 휘성 · 홍경민 · 정수라 · 김성환 등이 무대를 꾸민다.

시민안녕을 기원하는 봉축탑은 4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창원광장 로터리에서 불을 밝히며, '진해 봉축 한마당 축제(봉행위원장 해초)'는 5월 4일 오후 2시 진해 중원쉼터에서 문화한마당, 봉축법요식, 점등, 제등행렬 등이 진행된다.

통영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종묵)는 '봉축 연합법회'를 5월 7일 오후 6시 20분 통영시 항남동 한산대첩광장에서 봉행한다. 봉축연합법회는 헌공의식과 작법, 봉축법요식, 제등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제등행진은 한산대첩광장을 출발해 강구안 일대를 돌아오며 통영시에 이웃돕기 사랑의 성금을 기탁, 자비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음으로 찬탄하는 부처님 가르침

영도구불교聯, 4월 13일 영도구불교합창제

화합의 하모니로 봉축을 알리는 합창무대가 열린다.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4월 13일 오후 6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9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영도구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영도구불교합창제는 봉축을 맞아 합창으로 화합하고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합창 무대에는 미룡사 바라밀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 대원사 대원선재 합창단이 참가한다.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가 4월 13일 '영도구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합창제 모습.

합창제는 어린이 3중창과 해금무대로 시작해 1부는 불법의 내용을 담은 찬불가와 선법가를 주제로 각 사찰이 무대를 꾸민다. 곡은 '얼음위의 반가사유' '지혜와 자비로 부처님 같이'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 등 7곡이다. 이어 2부에서는 흥겨운 대중음악으로 활기찬 분위기를 선물한다. 곡은 '날 봐 귀순' '아모르 파티' '무지개 저 너머로' '오즈의 마법사' '마징가Z' 등 9곡이다. 보체(VOCE) 남성 앙상블의 게스트 무대와 출연팀이 연합으로 부르는 '부처님오신날'을 마지막으로 무대가 마무리된다.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은 "부처님의 진리가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합창단을 통해 울려퍼지는 화음으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해주신 진리를 다시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석산개발에 수행환경 침해 '시름'

내소사 인근 고령토 채굴
석산개발 인가신청 접수돼



내소사 인근 석산개발 인가신청을 도청이 반려할 것을 스님과 지역민들이 촉구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부안 내소사 인근에 고령토 채굴을 위한 석산개발인가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내소사와 부안 진서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지장암 일지 스님, 하윤기 진서면 이장단협의회장 등 주민 100여 명은 4월 2일 진서면 운호리 석산개발 현장에서 '고령토 채굴 석산개발 반대투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안군과 전라북도는 석산개발 허가를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

채굴계획인가 신청 지역은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 36-11번지 외 4필지다. 변산국립공원과 내소사와는 직선거리로 수백미터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고령토 석산개발이 진행될 경우 바다를 낀 해안관광도로의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내소사 수행환경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고령토 석산이 개발될 경우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 분진과 소음 등으로 내소사 봉래선원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의 수행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진서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안군 전체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고령토 석산개발을 막아내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윤기 이장단협의회장은 "고령토 채굴은 핑계에 불과하고 석산개발로 얻어지는 석재를 채취하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고령토 개발을 하려는 부지는 부안 관광의 중심지다. 채석강과 천년고찰 내소사를 잇는 해안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발파진동과 분진, 수시로 출몰하는 덤프트럭으로 인해 주변상가의 피해는 물론 천혜의 관광지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고령토 석산이 개발되면 천일염을 생산하는 곰소염전, 곰소 젓갈단지는 물론 일반 주민들 건강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오지 않는 부안은 죽은 지역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석산개발을 신청한 업체는 지난 2월말 전북도청에 부안지역 고령토 채굴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라북도가 현재 부안군청에 관련법령 협의를 요구한 상태이며 종합적인 검토 후 최종적으로 전북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고령토 개발을 신청한 업체는 충남 부여에 소재한 업체로 이미 지난 2015년과 2016년에도 내소사 입구인 석포리 일대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종전에는 진서면 석포리 지역에 신청을 한 반면 이번에는 운호리까지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